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장 서 연

김 영 근†

인제대학교

본 연구는 생계형 워킹맘이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 현상학적 연구이다.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가족 다중역할을 경험하게 된 학령기 전 아동을 둔 여성 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 워킹맘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생계형 워킹맘은 이전과는 다른 삶과 더해지는 부담으로 인한 일-가족 다중역할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셋째, 생계형 워킹맘은 일-가족 갈등으로 유발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회피하거나 친구와의 대화로 해소하였다. 넷째, 생계형 워킹맘은 일-가족 다중역할 부담을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심리적 고통을 가족의 정서적 지지로 위로받기도 한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통해 늘어난 수입으로 덜어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한걸음 뒤에서 보는 육아의 여유,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으로 보고 있었다.

주요어 : 워킹맘, 생계형 워킹맘, 일-가족 다중역할, 현상학적 연구

* 본 논문은 2019학년도 1학기 연구프로젝트 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영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E-mail : ykkim@inje.ac.kr

지난 20년간 전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성 인력 비중의 증가이다(강혜련, 윤미자, 2004; 최윤정, 김계현, 2007). 실제로 최근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49.9%(통계청, 2009)에서 2019년 5월 기준 54.2%(통계청, 2019)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최근 현대사회의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가구 전체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맞벌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황수경, 2010). 그러나 실제로 결혼 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을 살펴보면 맞벌이 기혼여성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부부 비율은 낮아지고,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 여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1). 이는 직장에 근무하는 엄마, 다른 말로 워킹맘은 맞벌이가 필요함에도 아이로 인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따라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우영지, 이기학, 2018). 그 이유는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이 개인의 차원에서 삶, 결혼, 가족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안 및 신체화 증상, 우울증이나 긴장 같은 심리적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일으킨다. 또한, 직장 조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 및 진로 만족도, 조직에 대한 수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Allen et al., 2000). 우리나라의 일-가족 갈등요인 중 전통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자녀 양육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만들며, 특히 직장과 육아가 서로 부딪힐 때 육아에 초점을 두도록 강요하게

된다(김인지, 이숙현, 2005; Jang & Merriam, 2004). 이러한 성별화된 가사노동 분업, 모성 이데올로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양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만든다(Sutherland & Jean, 2001). 특히, 학령기 전 아동을 둔 워킹맘의 경우 양육의 에너지와 시간이 지속해서 부가됨에 따라(Hill, Hawkins, Ferris, & Weitzman, 2001) 일과 병행하는 것에 더 큰 심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일-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중점이 되고 있다. 또한, 일-가족 다중역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일-가족 다중역할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Barnett & Hyde, 2001; Frone, 2003; Greenhaus & Powell, 2006).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역할 간의 갈등 즉, 부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반대로 자원의 충족을 발생시켜 역할 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기존 문헌 검토와 풍부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 후(Barnett & Hyde, 2001), 일-가족의 긍정적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려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강혜련, 윤미자, 2004; Edwards & Rothbard, 2000; Frone, 2003; Greenhaus & Powell, 2006; Rudeman, Ohlott, Panzer, & King, 2002). 따라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워킹맘이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변인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양적 연구이다. 그러나 워킹맘

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워킹맘의 내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워킹맘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강상례와 이해경(2012)의 연구는 30대 기혼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일-가족 경험 중 노동과 소진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혼여성 간호사는 과도한 업무와 가정 업무의 부담, 불확실한 미래, 전문성의 결여 등에 회의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손진희(2013)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 결과, 전문직 여성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수행하면서 직무 효능감이 높아지면서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자녀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명희와 김세현(2017)은 30~40대 중산층 기혼여성의 자아 지향에 따른 일과 육아의 갈등경험을 연구하였다. 그 외 해외 거주 워킹맘 대상(이숙현, 이세인, 김인지, 2010),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1),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일-가정 경험(선민정, 류주연, 2018),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진로 경험(손진희, 2013),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자녀 양육(엄경애, 양정은 2011), 1세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직장여성(이내영, 김영혜, 구미지, 김소희, 김영미, 장경오, 2007) 등의 선행연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특정 경험에 국한되거나 특정 직장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워킹맘의 경험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편, 한국의 워킹맘의 일상적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노성숙 외, 2012)를 살펴보면, 워킹맘은 한정된 시간과 체력, 자원을 가지고 일, 가정이라는 양 트랙을 오가며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때로는 불편한 외부의 시선에 직면하고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주체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가정과 일이라는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얻은 시너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해 심층적인 내적 경험을 탐색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대졸 이상의 전일제 직장여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직장,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하는 그 자체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신희, 양은주(2012)와 노성숙 등(2013)은 한국의 워킹맘 여성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 생계형 워킹맘 등과 같은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전반 워킹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연구대상에 관한 탐색을 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이 느끼는 안정감과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Voydanoff, 1988). 또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우영지, 이기학, 2018). 이러한 직장에 관한 심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특징적으로 전

일제 근무보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직장이 집 근처이거나 출근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것으로 출퇴근 시간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이 가족의 조건을 우선시하여 단시간 근무를 더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이는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자 직장을 구할 때도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게 된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 워킹맘을 대상으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워킹맘, 즉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심층 면담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워킹맘 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에 관해 풍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형 워킹맘은 다중역할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생계형 워킹맘에게 다중역할 경험이 주는 의미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소개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 전 아동을 양육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여성 5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에 근무하게 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생계형 워킹맘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생계형 워킹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생계형이라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현 가계 소득수준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계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둘째, “현재 가정의 경제적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셋째,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결과, 참여자 모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현 가정의 경제적 소득에 불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중 가정의 경제적 수입이 가장 낮은 참여자는 수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심리적 만족감이 높은 편에 속하였고, 경제적 수입이 높은 참여자들은 오히려 심리적 만족감이 낮고, 남편의 수입에 높은 불만을 보여 더 높은 수입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소득수준보다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느냐의 유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이 경제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때, 소득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우영지, 이기학,

2018), 그 이유는 개인이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이 심리적 만족감과 관련해서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Dean, Carroll, & Yang, 2007).

둘째, 학령기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생계형 워킹맘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어린 아동은 경험과 판단이 미숙하여 양육의 시간과 에너지가 꾸준히 요구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긴장도와 함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Hill et al., 2001)되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주어질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에서 부모의 보호를 더욱 필요로 하는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일-가족 다중역할의 갈등과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적 친분, 소개 및 온라인 맘 카페를 통해 표집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30세에서 41세까지로 평균 35.8세였고, 학력은 고졸에서 박사까지 다양한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으로 평균 2.8년이었으며 모두 비정규직이면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자녀의 수는 1명에서 2명으로 평균 1.2명이었으며 나이는 2세에서 5세로 평균 4.8세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연구 참여자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A는 2013년 임신하면서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2016년 아이가 25개월쯤 되었을 때 일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현재 5살 아들 1명을 둔 41세 여성이다. 남편 수입만으로 매년 커지는 양육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에 일하게 되었다. 아이 양육으로 인해 여러 번의 직장을 옮겨왔으며 현재 시간제 근무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은 버스 기사다. 참여자 B는 슬하에 6세 아들 1명을 두고 2018년 10월부터 녹즙을 배달하고 있는 36세 여성이다. 출산 준비로 기존 회사를 퇴사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2년간의 휴직 이후 고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2016년 아이가 2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을 나가게 되었다. 여러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은 2018년부터 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참여자 C는 현재 3세 남아와 5세 여아를 둔 39세 여성이다. 미래를 대비해서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2017년 아이가 1세, 3세가 되었을 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2018년부터 식당 서빙을 하게 되었으며,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일손이 부족한 날 식당 휴가를 내고 도와주고 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운영하시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

참여자	성별	나이	학력	근무형태	경력	직업	남편 직업	자녀 수/ 나이
A	여	41	대졸	시간제	3	서비스업	버스 기사	1명/ 5세
B	여	36	고졸	시간제	3	녹즙 배달	버스 기사	1명/ 5세
C	여	39	대졸	시간제	3	식당 서빙	개인사업자	2명/ 3세, 5세
D	여	32	박사	시간제	3	시간제 강사	개인사업자	1명/ 3세
E	여	30	석사	시간제	2	카페 직원	택배기사	1명/ 2세

는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D는 시간제 대학 강사로 3세 남아 1명을 둔 32세 여성이다. 출산 준비로 기존 직장을 퇴사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의 근무 특성상 불규칙한 수입으로 매달 생활비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다가 출산 후 3개월 만에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방학 기간에는 캠프 운영을 위해 자택 근무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고 학기 중에는 시간제 대학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맞벌이하고 있으나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에 대한 염려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여자 E는 슬하에 2세 남아를 두고 갑작스럽게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일하게 된 31세 여성이다. 2018년 5월, 아이가 13개월쯤에 카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남편은 개인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2월부터 5월 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5명의 참여자를 각 2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직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2차 면담 시 면담이 어려운 참여자들의 경우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면담 전 면담이 녹취된다는 점과 비밀보장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걸친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기 전 아동을 양육하는 생계형 워킹맘들이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한 개인의 내적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남인, 2014). 사람들이 일상세계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상적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Giorgi(1985)의 연구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로, 녹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필사하였다. 녹취된 전사 자료를 정독하면서 내용이 헛갈리는 부분은 다시 면담자료를 들으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필사를 마친 후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를 확인하였다. 전체 자료를 읽을 때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유지한 채, 참여자의 전체 기술내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녹취록과 녹음자료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면담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된 내용 중 애매한 부분에 관해 참여자들에게 다시 질문함으로써 내용을 세밀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각각의 녹취록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 분석하면서 다음 단계인 의미 단위 분석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

둘째로, 전사된 면담 자료의 내용을 읽으면서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선(/)을 사용하여 의미 간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의미 단위 요약 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요약하였다. 고유번호를 붙여서 참여자 간의 공통된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는 구성요소 도출과정을 위해 원자료와 나란히 두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진술된 의미 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단계를 거쳤다. 위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 단

위 중에서 중복, 구조 형성 시 맥락에서 벗어난 의미 단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미 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공통 의미 단위로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로 다시 돌아가 선입견과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를 반복 진행하였다. 이러한 통합 단계에서는 모든 변형된 의미 단위가 사용되어야 하며, 변형된 의미 단위가 공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일반적인 기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통해 얻은 참여자들의 공통되는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의 본질로 보고 시간적, 인과적, 긍정/부정적 속성들로 나열 구분하고 비교를 통해 구성요소 간의 관계와 공통적 속성들을 재배열 및 정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를 범주화하고 구성요소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진술 사례들을 선별하여 수정·보완 후

체계화하여 제안함으로써 생계형 워킹맘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본질과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견해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복적인 현상학적 자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자료의 공통된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거나 구성요소의 재배열 및 정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향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와 질적 연구를 한 박사 1인 및 다른 현상학 연구를 진행 중인 동료 2인과의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학령기 전 아동을 둔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해 분석한 결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또 다른 삶을 마주

표 2. 생계형 워킹맘의 다중역할 경험의 범주화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불안한 생활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	이전과는 다른 삶
	더해지는 부담
	깊이 생각하지 않기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다	친구와의 대화
	힘을 주는 가족
	위기상황에 손을 내민 지지자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 보다	덜어진 걱정
	한걸음 뒤에서 보게 되는 육아
	성장한 나

하다,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다', '지지가 의해 삶을 이겨내 보다', '변화된 나를 발견하다' 등 총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임신, 출산으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다. 퇴사하고 아이를 도맡아 양육하게 되면서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다. 여유 없는 경제적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와 생활비로 미래의 삶을 걱정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가정의 어려움과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찾게 되었다.

불안한 생활

참여자들은 아이의 양육으로 인해 퇴사 후 배우자의 수입만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체감하였다. 특히, 대부분 참여자의 배우자 수입이 불안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활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제적 불안을 지속으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직장에서도 근무하게 되었다.

“어...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 충분히 패도에 오르지 못했고, 쉬었던 부분이 있어서... 휴직 기간이 본의 아니게 길어져서 있던 돈도 슬슬 까먹어갈 때라서 제가

초조함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중략)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산다 싶을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내가 (일하면) 이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B]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

참여자들은 미래의 삶에 관한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에 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특히, 미래의 걱정으로 인해 더욱더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신랑이 혼자 벌 때는 (물건을 살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고... 어... 이거를 사고 이거를 하면 다음 달이 어떻게 그 다음 달에 카드 값이 어떨 것이며, 또 여자들은 생각이 많으니까 다음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 년 후... 자꾸 생각이 드니깐... (중략) 지금 당장이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애가 컸을 때 1년 후에... 몇 개월 후에... 2년 후에... 십 년 후에... 그게 걱정돼요. 혼자 벌어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옛날 처럼 자식을 밥 먹이고 옷만 입히고 키울 순 없잖아요...” [참여자 A]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

참여자들은 직장에서도 근무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서 엄마로서 함께 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잦은 아이의 병치레로 직장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거나 일-가족 다중역할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변화된 삶 속에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화풀이하게 되었다. 특히, 배우자의 늦은 귀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정의 역할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더 큰 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참여자들은 직장을 근무하게 되면서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함께 기존의 전업주부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내 시간이 좀 더 없어진다는 느낌? 이게 가정적인 일 하고, 회사 일을 같이하다 보면 중간에 내 시간이라는 게 없어져요... 내가 이게 기계같이 뭔가 부품이 착착 들어가서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깐 내가 멍하고 싶어지는 시간이 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가정의 일을 본다고, 사회의 일을 한다고 계속 시간이 없어져 가는 거 같아요.” [참여자 B]

“저는 육아에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이렇다 보니깐 집안일을 좀 깔끔하게 하려다 보니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스

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참여자 D]

특히,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아이로 인한 갈등을 크게 경험하였다.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엄마와 함께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 때, 죄책감과 슬픔을 경험하였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마음이... 엄마 마음이 일단 제일 힘들었고, 너무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고... 마음이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 일할 때는 애가 자주 아픈 시기니까... 그때는... 2~3개월에 한 번꼴로는 거의 다달이 병원에 갔었고... 3~4개월에 한 번은 입원했었고... (중략) 아플 때 억지로 보냈던 거... 아파서 못가겠다 하는 애를 억지로 어린이 집에 밀어 넣었던 거. 그게 제일 속상하지... (슬픈 웃음) 미안하고... 그게... 아기에... 물론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미안한 거지... 아기가 기억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어린애들이 표현하잖아... 떨어지기 싫다는 거를... 가기 싫다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제일 미안한... 근데 그 미안함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참여자 A]

“아이가 아주 아파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는 아픈데 돌봐줄 사람은 없고, 정말 아이가 아주 아팠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아이가 입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참여자 C]

한편, 참여자들은 일-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자신을 보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회사 일을 계속 가정으로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회사 상사의 전화를 받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에게 화도 냈던 거 같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깐 그만 좀 귀찮게 굴어, 너 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엄마 이거 다하면 갈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저 아이에게 상처를 줘야 하나...? 그때는 저도 좀 지쳐 있었던 거 같아요. 아이의 육아를 하면서... 일도 같이하면서 했던 부분이 그게 많이 스트레스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이한테 언성이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감정을 내가 제어를 못 한다는 게...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참여자 B]

“모유 수유 중이니깐. 밤에 아이가 자주 깰 때마다 예전보다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안 그랬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갔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몸이 힘드니 저도 모르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가끔 폭발하기도 해서 울기도 했어요.” [참여자 E]

참여자들의 남편은 평균 10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고정적인 휴무가 없거나 밤 8시가 넘어서 퇴근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역할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

면서도 남편과 가사 분담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남편은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현재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략) 주말에도 쉬지 않으니 혼자 하는 거죠.” [참여자 C]

“사실 남편이 1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 혼자 하는 육아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아서 제가 거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참여자 E]

더해지는 부담

참여자들은 매정한 엄마, 이상한 사람 등으로 바라보는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주변의 시선에 스스로 이렇게까지 해서 직장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러한 시선에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워킹맘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은 참여자의 삶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는 그렇게 일을 꼭 해야 하나... (중략) 제가 어린애를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매정한 엄마로 보는 시선들이 힘들었어요. (중략) 오히려 그러한 시선에 더 열심히 너희들보다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분은 요즘 직장 엄마들은 맡길 사람 없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등원 부탁하는 때도 있던데 언니는 그러지 않을 거지라고 이야

기하는 등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받아들이 자들도 있었다.
기 고통스러웠어요.” [참여자 D]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지속 하면서 개인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경험하고 국가적 지원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양육비의 부담, 아이 보육과 관련된 국가의 복지체계에 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요즘 저출산이라든지, 결혼을 늦게 하 든지, 결혼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사 회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가 없는 것 같 아요. 저출산이라고 그리 말하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예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사 실 요즘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을까 요? 아이 키우기 너무 빠빠한 현실이예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 요.” [참여자 D]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둥치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로 인해 유발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수 용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구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 해 친구와의 만남이나 대화조차 어려운 참여

깊이 생각하지 않기

참여자들은 다중역할이 지속함에 따라 일-가족 갈등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신이 힘들 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의 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서 감내하 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러한 부정적 감 정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기 도 하였다.

“나 긍정적으로 좀 살자... 사람이 이렇 게 살다가 진짜 암 걸려 죽겠다... 이러다 가 진짜 단명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 어요.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 방 법이 있을까? 했더니 아~ 그냥 물처럼 흘 려보내자. 그냥 신경이 쓰이거나 누가 쿵 때리거나 그래도 아~ 뭐 별거 있겠어. 하 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그게 어두워진다 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 더라고요. 나는 내가 챙겨야 하겠다... 그 런 느낌?” [참여자 B]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 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걱정하거나 못하겠다는 생 각을 해봤자 누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니 그런 것에 크게 생각 두지 않아요. 생 각하면 그 부담감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아 요. 못할 것 같고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봐 무섭기도 했어요...” [참여자 E]

친구와의 대화

참여자들은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시콜콜한 일상대화 또는 일-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만남이 어려운 경우 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과 만남이 어려운 참여자들의 경우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친구들이랑 같이 남편 욕도 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만나기 힘들면 전화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친구들한테 위로도 받고요.” [참여자 C]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보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과 신뢰로 인해 소진된 내적 에너지를 충족시키거나, 남편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의 노력과 정서적 지지로 힘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직장 근무로 인해 가정의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친정 부모님, 주변 지인, 시부모님 등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도 하였다.

힘을 주는 가족

참여자들은 아이가 주는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에 행복감을 경험하였다. 특히,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큰 감격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의 사랑은 소진된 참여자들의 내적 에너지를 충족시켜 주고 있었으며 그리고 엄마로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자신을 위

해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경험하고 남편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였다.

“아이가 먼저 와서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하면서 그러면서 안겨 올 때... 우리 아들이 그 작은 가슴으로 내 머리를 안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것이... (웃음) 너무 힐링이 돼서... 내가 이걸 이렇게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일하게 나에게 뭘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는 거 같아요.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느낌... (웃음)” [참여자 B]

“그래도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쉬는 날에도 아이랑 놀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지도 많이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있음을 몰라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원망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지지를 해주니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참 고마워요.” [참여자 E]

위기상황에 손을 내민 지지자

참여자들은 여러 일-가족 갈등 가운데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은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딸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제일 편했던 어머니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침에 유치원에 애를 옷을 입혀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예약을 급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안 될 때 어머니에게 대신 예약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할 때...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고. (웃음)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워낙 바쁘셔서... (중략) 어머니가 도와주시죠...” [참여자 B]

“친정엄마를 불렀어요. 매일 애를 봐주시고... 제가 중간고사 기간이면 엄마는 다시 내려가시고 (중략)” [참여자 D]

변화된 나를 발견하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일-가족 갈등과 위기 속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그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먼저 일을 하게 되면서 늘어난 수입으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아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풍요로움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와 육아에 대한 여유 없던 전업주부의 삶에서 벗어나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헤쳐 나가는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으며 성장한 자신을 보면 뿌듯함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더 해줄 수 있다는 만족감

참여자들은 늘어난 수입으로 인해 아이에게 물질적인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기존에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의 수입에 의지해 생활할 때는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의 고민 끝에 구매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구매하게 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는 아이 옷 사는 부분이라든지 뭐 해주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정말 만 원 하나짜리 사주더라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니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간식도 사줄 수 있고 저에 대한 투자는 고민하지만, 아이를 위한 물건을 살 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행복해요. 그래서 일은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슬픔도,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일해요. 일은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더 만족감이 큰 것 같아요.” [참여자 E]

한걸음 뒤에서 보게 되는 육아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하면서 육아에 전념하던 삶과 비교하여 지금이 더 나은 삶으로 평가하였다. 전업주부의 삶에서 아이에게 몰두하게 되면서 마치 ‘경주마’ 같은 삶을 보내었고 그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처음 경험하는 엄마로서의 경험과 자신의 생활이 없는 전업주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집에서 계속 아이만 키우고 아이만 쳐다봤을 때는 경주마 같았어요. 내 아이는

이 선에서 이렇게 키워야지... 이 아이가 요맘때 되면 걸어야 하고, 요맘때 되면 말을 해야 하고, 요맘때 되면 온 관심이 아이에게만 집중이 돼서 아이가 조금 피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러 나오면서 아이에 관한 관심이 아예 없어졌다고는 말 못 해요... 조금 줄어들긴 하면서 일과 내 일상생활에 이제 나누어져서... 이게 좀 길게 쌓았던 블록이 좀 옆으로 누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참여자 B]

“일하지 않으면, 양육만 하게 되면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낫지만,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제 생활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무경험의 세계에 침범침범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참여자 D]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여유로워질 것이라 예상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이가 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여유가 생기면... 계속 결혼 전부터 일을 해왔기에 일을 계속하겠지만 그때 되면 아이가 저를 찾는 게 덜 해지니깐. 편찮아질 것 같아요. (중략)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정도 시기일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밤에도 엄마가 없으면 중간에 일어나서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밤에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다시 들어온 예도 있고 아니

면 아예 다시 와서 아이를 데리고 친구 모임에 간 적도 있어요... (한숨) 그런 것이 좀 더 줄 것 같아요.” [참여자 C]

성장한 나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어떤 일에도 해낼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다는 뿌듯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해도... 뭘 해도... 꼭 하고 살고 싶어요. 성취감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됐죠... 성취감 때문에 진짜 긍정적으로 된 거 같아요... 뭘... 뭘가를 해도...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해도 해낼 수 있을 그거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일이 생겨서는 내가 별로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내가 아주 단단해지는 걸 느끼는 거지...” [참여자 A]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된 학령기 전 아동을 둔 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9년 2월에서 5월까지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의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 ‘고통의 삶 속에 발버둥

치다,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 보다', '변화된 나를 발견하다' 등 총 다섯 가지 구성요소, 11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구성요소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로, 참여자들은 불안한 생활과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직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소득수준을 가진 이들이었으나, 모두 가계 경제에 대해 스스로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을 다니기 전 다들 생계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이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만족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것을 확인하면서(Dean et al., 2007),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소득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우영지, 이기학, 2018)과 일치된 결과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자녀 양육의 가정 역할의 증가로 인해 직장을 병행하면서 직장 경력단절을 하는 경향성이 많은데(이진숙, 최원석, 2011; 전기택, 2011), 본 연구에서도 경력단절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여성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임신 후 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스스로가 출산 준비 가운데 언제 그만둘 것인지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모성'이라는 것이 기혼여성에게 경제활동 포기 후 아이의 양육 부분을 맡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게 만드는(Jang & Merriam, 2004) 사회 분위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모두 시간제 근무 형태로 일

을 하고 있었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족의 조건, 즉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우선으로 두고 단시간의 근무를 희망하는 것(한국여성개발원, 200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직장 경력의 단절 시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느낌, 소속감 부재, 사회에서의 도태로 생각되면서 정서적으로 답답함, 무기력, 자신감의 상실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엄경애, 양성은, 2011), 본 연구에서 참여자 A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없어지는 느낌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보고된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결혼, 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을 위해 경력단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할 상담서비스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이 희망하는 시간제 근무가 다양한 직종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구성요소 '또 다른 삶을 마주하다'로 참여자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일-가족 다중역할부담 및 갈등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전업주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보내게 되었다. 직장을 병행하면서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을 경험하는데, 이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자녀를 위한 희생과 책임감이 강해서 양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성정원, 박성원, 2011).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전업주부의 삶과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령기 전 자녀를 둔 워킹맘이 경험한 '두 세계의 긴장 속을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삶'과 유사한 결과로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워킹맘들은 두 역할의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노성숙 외, 2012). 또한, 일-가족 다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소모로 인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김나현 등(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육체적 피로, 미해결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엄마-아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워킹맘이 현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정화 경험을 촉진함으로써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낮출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을 하면서 남편의 늦은 퇴근과 타인의 불편한 시선,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 현실을 체감하게 되면서 일-가족 갈등이 더 크게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 대부분이 배우자의 늦은 퇴근으로 가사 및 양육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 사용 시간으로 남편이 평균 25분, 여성은 2시간 54분으로(김주희, 2012)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도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타인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노성숙 등(2012)의 연구에서도 워킹맘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 보는 주변 시선'으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한다는 결과와 신지윤 등(2018)의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노성숙 등(2012)의 연구에서 워킹맘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워킹맘과 전업주부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칭 '소문자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대문자 여성' 속으로 일반화되지 않도록 각 개인이 드러내는 다양한 현실적 경

험을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참여자 D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개인이 타인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경험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워킹맘들이 주변의 불편한 시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도 주관적 가치관 및 판단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경험에 관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자녀지원 정책,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시스템 등 자녀를 키우기 힘든 우리나라 사회 실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녀의 양육적인 부분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저출산, 결혼 기피 등의 사회문제가 심해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워킹맘들의 일-가족 양립 연구 및 정책을 제안 및 진행하고 있다(전기택, 2011; 최윤정, 문상호, 신충식, 2009; 최윤정, 김계현, 2009).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 및 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통해 진행되는 직장 내 보육 시설, 육아휴직 등은 실제로는 제도의 정착 미흡으로 사업장 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유계숙, 2012)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일-가족 양립 정책을 마련하기 전 우리나라 워킹맘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 '고통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다'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회피하거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및 부담으로 유발된 스트레

스를 해소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으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에 심리적 고통을 바라보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대해 한계를 경험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정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유형을 크게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구분하고, 문제 중심적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스의 근원에 대처하는 노력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고통을 감소하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사용하고 있었다. Lawinsohn 등(1997)과 Lohman, Jarwis(2000)의 두 연구에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정서 중심적 대처로 사용할 경우, 우울, 낮은 자존감 등의 내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 '지지자에 의해 삶을 이겨내보다'로 참여자들은 가족 및 주변 지인으로 인해서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부담을 견뎌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가 주는 무조건적 사랑과 신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를 일-가족 다중역할의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즉, 정서적 지원은 타인으로부터 사랑, 친밀감, 신뢰 등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강혜련, 최서연, 2001)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원은 직장 갈등을

감소시켜서 일-가족 갈등을 감소한다는 결과 (Calpan & Jones, 1975; Adams, King, & King, 1996)와 일치한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부터 상황을 극복하면서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요 사회적 자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직장 이직이나 소진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혜영, 이경화, 2014), 심지어는 스트레스 감소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노출 확률도 낮춘다(차봉석, 장세진, 박종구, 1992). 따라서 워킹맘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일-가족 다중역할의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상담에서는 개인 내적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주변 지인과의 관계 탐색, 가족 상담 등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 '변화된 나를 발견하다'로 참여자들은 워킹맘이 되면서 가장 먼저 가정의 경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업주부로서 절약하고 구매 시 끊임없이 고민하던 삶에서 벗어나 아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삶의 풍요로움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을 본인의 능력으로 자각함으로써 자부심으로 느끼기도 하였다. 가정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육아에서 한걸음 벗어나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게 되는 경험으로 보고 있었다. 어린 아동은 경험과 판단이 미숙하여 양육의 시간과 에너지가 꾸준히 요구됨에 따라 부모의 역할 긴장도가 높고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Hill et al., 2001)하는데,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은 전

업주부로서 감당했던 가사와 양육의 두려움을 (김소영, 김선미, 이기영, 2011)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참여자들은 일-가족 다중역할의 갈등과 부담을 경험하면서 일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였는데, 김나현 등(201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경력단절로 인해 유발되었던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을 다시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김은주, 서영희, 2012)으로 보인다. 또한,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이는 경험으로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일-가족 다중역할의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갈등'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일-가족 향상 혹은 촉진'에서 연구되고 있는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강혜련, 윤미자, 2004; Greenhaus & Powell, 2006; Frone, 2003; Tompson & Werner, 1997)이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도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을 감소할 수 있는 상담 전략을 세우면서도 일-가족 향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연구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국내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워킹맘 중에서 생계형 워킹맘에 초점을 두고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생계형 워킹맘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일-가족 갈등과 스트레스만을 경험하는 과정이 아닌,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로써 참여자들은 모두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경력단절 경험 없는 여성의 경우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자녀의 나이를 학령기 전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이 결과를 다른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자신과 배우자의 고용형태 또는 근로시간,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일-가족 다중역할의 경험이 다양(박기남, 2009)하므로 일반화하기 위해선 다른 대상에 관한 추후 연구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에 관한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선입견과 판단중지를 하는 현상학적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성례, 이해경 (2012). 30대 기혼여성간호사의 노동과 소진경험에 관한 현상학적연구. 여성학논집, 29(1), 41-78.
- 강혜련, 윤미자 (2004). 여성관리자의 다중역할

- 몰입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28(1), 55-85.
- 강혜련, 최서연 (2001). 기혼여성 직장-가정 갈등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6(1), 23-42.
-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소영, 김선미, 이기영 (2011).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의 양상과 조화로운 양립의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가정자원경영학회지, 15(1), 8, 93-116.
- 김신희, 양은주 (2012). 유자녀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의 질에 따른 군집별 심리적 및 환경적 특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73-94.
- 김은주, 서영희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 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13.
- 김인지, 이숙현 (2005).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 역할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25.
- 김주희 (2012).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395.
- 박기남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한국여성학, 25(2), 37-71.
- 선민정, 류주연 (2018). 공공기관의 여성 시간선택제근로자에 대한 일과 가정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가족과 문화, 30(2), 171-209.
- 성정원 박성원 (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자녀 연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2), 123-145.
- 손진희 (2013).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의 진로 경험: 직장 경력 5-10년 여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1), 501-522.
- 엄경애, 양성은 (2011).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21-40.
- 우영지, 이기학 (2018). 취업모의 다중역할수행 대처전략에 따른 다중역할 경험 및 태도 수준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685-713.
- 유계숙 (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1), 111-125.
- 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경기: 한길사.
- 이내영, 김영혜, 구미지, 김소희, 김영미, 장경오 (2007). 직장여성의 육아경험: 1세 이하의 유아를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13(3), 329-337.
- 이숙현, 이세인, 김인지 (2010). 기혼 여성의 어려운 선택: 일, 직업적 성취, 그리고 모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107-132.
- 이진숙, 최원석 (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 양립갈등 경로에 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1), 169-197.
- 전기택 (2011).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 여성의 일자리.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 정혜영, 이경화 (2014). 사립유치원교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우울 및 소진의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3), 159-181.
- 조명희, 김세현 (2017). 여성의 자아 지향과 일-육아 갈등: 30. 40대 중산층 기혼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3), 245-285.
- 차봉석, 장세진, 박종구 (1992).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5(4), 429-447.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연구: 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윤정, 김계현 (2009). 여성 진로 상담 관점에서 본 다중역할(일-가족) 균형의 구성개념 및 측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찰. *상담학연구*, 10(1), 365-384.
- 최윤정, 문상호, 신충식 (2009).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워킹맘의 공공육체계 인식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 1-20.
- 통계청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통계청 (2011).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집계 결과.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통계청 (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tat.go.kr>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황수경 (2010). 일-생활 양립형 고용형태로서의 상용단기간근로 확대. *젠더리뷰*, 17, 41-50.
- Adams, G. A., King, L. A., & King, D. W. (1996). Relationships of job and family involvement, family social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with job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411-420.
- Allen, T. D., Herst, D., Bruck, C. S., & Sutton, M. (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 to 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and Psychology*, 5(2), 278-308.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796.
- Calpan, R. D. & Jones, K. W. (1975). Effect of work load, role ambiguity, and type a personality on anxiety, depression, and heart rat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6), 713-719.
- Dean, L. R., Carroll, J. S., & Yang, C. (2007). Materialism, perceived financial proble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5(3), 260-281.
- Edwards, J. R., & Rothbar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Spec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178-199.
- Frone, M. R. (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 143-162). Washington, DC: APA.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 Hill, E. J., Hawkins, A. J., Ferris, M., & Weitzman, M. (2001). Finding an extra day a week: The positive influence of perceived job flexibility on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Family Relations*, 50(1), 49-58.
- Jang, S. Y. & Merriam, S. (2004). Korean culture and the reentry motivations of university women. *Adult Education Quarterly*, 54(4), 273-29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 Lewinsohn, P. M., Gotlib, I. H., & Seeley, J. R. (1997). Depression-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re they specific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365-375.
- Lohman, B. J., & Jarvis, P. A. (2000). Adolescent stressors,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health studied in the family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15-43.
- Ruderman, M. N., Ohlott, P. J., Panzer, K., & King, S. N. (2002). Benefits of multiple roles for managerial wome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2), 369-386.
- Sutherland, Jean-Anne(2010). Mothering, guilt and shame. *Sociology Compass*, 4(5), 310-321.
- Tompson, H. B., & Werner, J. M. (1997). The impact of role conflict facilitation on core and discretionary behaviors: Testing a mediated model. *Journal of Management*, 23(4), 583-601.
- Voydanoff, P. (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749-761.
- 1차원고접수 : 2019. 07. 13.
심사통과접수 : 2019. 09. 28.
최종원고접수 : 2019. 09. 3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ubsistence-Type Work-Family Multiple Role Working Mom

Seoyeon Jang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aimed at exploring what subsistence-type working moms experience from their multiple roles in a family and what their experiences mean.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 with five women who had children of pre-school age and come to experience the multiple roles of work-famil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in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pplied to Giorgi's methodology were as follows: Firstly, working moms experienced financial difficulties in their families. Since then, they had become aware of the necessity of economic activity, and had been able to go to work. Secondly, living working moms experienced the stress of multiple roles of family members due to the burden of different lives. Thirdly, it was difficult to endure the stress caused by these conflicts, and it was also difficult to avoid emotion and try to resolve it through dialogue with friends. Fourthly, subsistence-type working moms can solve problems through help from supporters in a reality that is intolerable, and can heal a tired mind through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families. Fifthly, they saw themselves as results of their lives' changes and their families' economic difficulties and a step later, and their experiences of discovering themselves as grown people.

Key words : working mom, subsistence-type, work-family, multiple role, phenomenological study